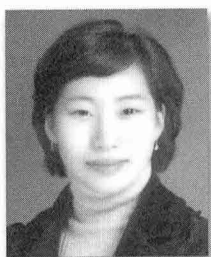


## 선린 호스피스 기관견학을 마치고...

맹수인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전인치료센터



**길** 지 않은 8주간의 호스피스 단기교육을 마무리하면서 호스피스 기관견학을 가게 되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호스피스 병동이라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새로운 곳에 가본다는 마음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하늘 길을 따라 3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포항에 위치한 선린호스피스로 출발하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여러 명이 함께 떠나니 학창시절에 수학여행을 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여행의 마음으로 떠난 3시간이 금새 지나 드디어 바다가 인접해 있는 선린병원에 도착하였습니다.

선린 호스피스는 1995년 원목실 중심의 호스피스 봉사 활동으로 시작하여 2002년 9월에는 산재형 호스피스를 2003년에 병동형 호스피스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22병상을 가진 병동은 크지도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생의 여정의 끝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이었습니다.

무지개 병동, 그곳이 바로 호스피스 병동의 이름이었습니다.

병동 이름에도 인간을 사랑하는 하느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으로 세상이 타락이 되었을 때 하느님의 뜻에 따라 구원을 받은 노아의 방주처럼 다시는 비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뜻

으로 무지개를 선물 하셨듯이 무지개처럼 희망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하였습니다.

병동은 하늘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하기위하여 9층에 위치해 있었고 하늘의 천국과 같은 분위기인 하늘 정원이 있었습니다. 작고 아담한 곳이었지만 바라보기만 하여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곳이 이름 그대로 하늘 정원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본 것 중 가장 좋았던 것은 낮 병동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간호에 지친 보호자에게는 휴식의 시간을 주면서 환자에게는 여러 사람과 어울릴 수 있고 원에 치료, 종이 접기, 미술 치료, 웃음 요법 등등의 여러 가지 요법으로 삶의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이었습니다.

아직은 여러 가지 제도화의 높은 문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그리 크지 않은 그 방안에는 분명히 행복과 희망이 존재함을 느꼈습니다.

테라피스트들과 함께 하면서 잘 움직여지지 않았을 손일지라도 행복한 마음으로 만들었을 훌륭한 꽃, 보기만 해도 마음이 전해지는 벽에 걸린 액자, 그 속에서는 높은 제도화의 문턱이 더 이상 넘지 못할 벽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4평 남짓한 공간에는 아기자기한 운동기구, 편안해 보이는 꽃무늬 쇼파, 사진들이 양증맞게 놓여 있어 따뜻함이 물씬 풍겨나던 작은 공간이 아주 넓고 짝 차 보였습니다.

호스피스라는 이 아름다운 단어가 조금씩 저희에게 가깝게 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모든 희망을 치료에 전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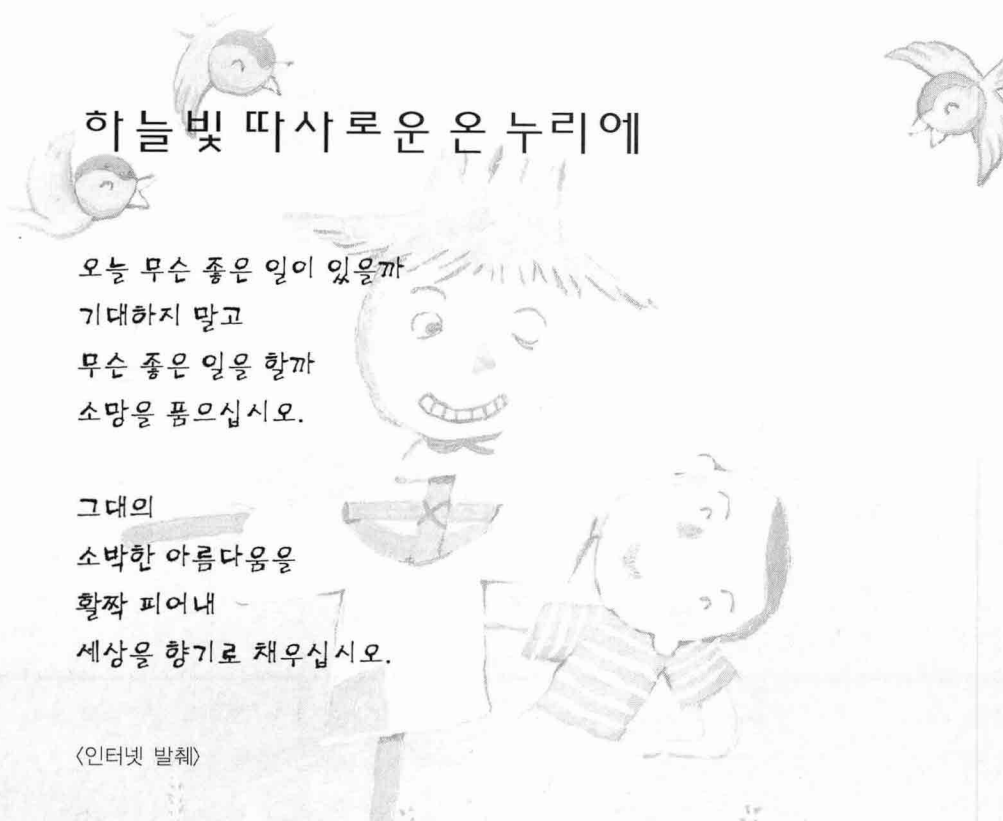
하다 더 이상의 치료 효과가 없어 퇴원을 권유받고 난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모든 희망을 포기 했던 사람들이 남은 시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의 완성을 향해 아름답게 걸어가는 법과 살아오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을 행복해 하는 법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곳이 호스피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면서 돌아오는 길에는 가벼웠던 마음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간호사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더 열심히 환자들을 간호하고 환자를 그냥 단순히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이 아닌 행복한 삶을 마무리하는 그리고 삶의 완성을 향해가는 인생의 선배로 존중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모든 호스피스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 파이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함께 교육을 듣고 여행도 함께한 선생님들 파이팅!



## 하늘빛 따사로운 온누리에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기대하지 말고  
무슨 좋은 일을 할까  
소망을 품으십시오.

그대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활짝 피어내  
세상을 향기로 채우십시오.